



벤처CEO들이 말하는 '내 인생의 책'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벤처기업 CEO들. 책 읽을 시간이나 있을까 싶은 그들이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독서광들도 많다. 그렇다면 벤처인증 독서광들이 선택한 책은 어떤 것일까? 4명의 벤처CEO가 꼽은 잊지 못할 책을 소개한다.

시그엔 최일연 대표 - <명상록>

●○ 최일연 대표의 추천 이유? | 눈을 들어 잠시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이, 코박고 살아온 나에게 늘 심포가 되어준 고마운 책 한 권은 바로 로마의 황제요,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다. 자칫 무겁고 권위적일 수 있는 철학적 내용을 간단하고 솔직하게 간추려낸 구성이라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친금 같은 조언처럼 소중한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인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숨겨둔 보물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 번 읽게 되었고, 요즘도 틈이 날 때마다 읽곤 한다. 책을 덮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지는 이 기분을 벤처인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기를 꼭 권하고 싶다.



●○ <명상록>은 어떤 책? | 인간을 모든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아우렐리우스의 사색이 기록된 책으로 스토아적 철인으로서, 또 격무에 시달리는 황제로서의 고뇌가 잘 드러나 있다. 책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엄격하고도 사색적인 성격을 담고 있어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에게 깊이 있는 철학적 가르침을 주는 영원한 걸작이다.

<명상록>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지음 · 김철곤 옮김 - 민중출판사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오재철 대표 - <정상으로 가는 길>

●○ 오재철 대표의 추천 이유? |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도 늘 책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 많아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보냈던 날들도 허다하다. 독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직원들에게도 책 읽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80여 명의 직원들에게 각자의 개성에 맞는 책을 선정해 선물하기도 했다. 그때 나 자신에게 골라준 책이 바로 <정상으로 가는 길>이었다.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듣는 '생애 최고의 비즈니스 조언'은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평소 CEO에게 필요한 직관력과 통찰력, 결단력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스승은 책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정상으로 가는 길>은 어떤 책? |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트럼프 타워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들의 주인이기도 하며 미국 부동산 업계의 대부인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똑똑하고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는 154명의 CEO들에게 물었다.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 생애 최고의 비즈니스 조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실린 이 책은 CEO뿐 아니라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과 비즈니스맨들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을 설득력 있게 전한다.

<정상으로 가는 길> / 도널드 트럼프 지음 · 고희정 옮김 - 황금가지

이쓰리넷 성영숙 대표 - <내가 사랑하는 사람>

●○ **성영숙 대표의 추천 이유?** | '동생한테 붕어빵 한 봉지를 사주었다. 동생이 빵은 먹고 붕어는 어항에 키우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다.' 내가 정호승 시인을 처음 만난 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동시집에서였다. 50대의 눈으로 쓴 동시에는 사회에 찌든 성인들도 유년시절의 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향수가 묻어난다. 그의 대표작들을 묶은 시선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도 세대를 뛰어넘은 공감이 그려져 있다. 올 여름 휴가에는 마음의 나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시선집 하나를 추천하고 싶다.



●○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책?** |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과 남다른 감수성으로 독자의 가슴을 울리는 시인 정호승의 시집으로 그동안 발표했던 시 중 대표작들

을 모았다. 시집에 수록된 시는 <서울의 예수>, <슬픔이 기쁨에게>, <밥 먹는 법>, <상처는 스승이다>를 비롯해 최근작까지 70년대, 80년대를 거쳐 21세기의 시인의 감성을 통과해 온 작품들이다. 시간이 변해도 잊지 않는 진실이 있듯이,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은 우리가 살면서 잊으면 안 될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다.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방향하는 청춘 등 한때 우리가 겪었을 법한 이야기이면서, 지금도 어디에선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법한 또 다른 누군가들이 이야기이다.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 정호승 지음 - 열림원

코리안클릭 박진영 대표 -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 **박진영 대표의 추천 이유?** | 모든 기업들은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대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요소를 명확한 개념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지금은 '기업'이라는 글 앞에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어려운 벤처기업을 운영하지만, 언젠가는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많은 벤처CEO들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위대한 CEO들의 공통 덕목(일에 대한 의지와 겸양)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 갖추려고 노력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다.

●○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는 어떤 책?** |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조

사를 통해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밝혀낸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의 저자가 쓴 또 하나의 역작이다. 이 책은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위대하지 않은 회사들이 어떻게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또 그 위대함을 지속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저자를 포함한 21명의 연구팀이 5년간 연구한 결과물로, '도약에 성공한 회사들이 공통으로 다른 기업들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에 주안점을 두었다. 보수, 경영 전략과 기업 문화, 해고와 리더십의 스타일을 살펴본 후 도출된 이 결과물 중 일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당혹케 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 짐 콜린스 지음 · 이무열 옮김 - 김영사